

기사입력 2014/11/04 15:54

인쇄하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심윤조 의원과 간담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는 지난달 22일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한국학교의 실정과 현황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회장은 NAKS 소속 1000개의 한국학교들은 한국어 뿐만아니라 한인 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함양을 위해 역사·문화와 독도·위안부 문제 등도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과 한인 학생들의 한국 방문, 교재 개발 등이 앞으로 NAKS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학교의 지원금이 각 학교 운영비의 20% 정도에 그치는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도 강조했다. 서울 심윤조 위원장실에서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왼쪽부터)과 심윤조 의원, 최미영 총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INS** AMERICA